

특별 기고



정기연
전영암신복초등학교 교장

자랑스러운 거룩한 두 손

집승들은 두 앞발을 가지고 있으나 사람은 앞발이 변하여 두 손이 되었다.

우리 인간은 두 손으로 많은 일을 하며 인류문명을 이룩하여 왔으며 맑은 일을 잘한 자랑스러운 손의 덕택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농촌에서 속담에 “눈은 게으로고 손은 부지런하다.”라는 말이 있다. 할 일

앞에서 눈으로 보고 “이 많은 일을 언제 다 할 거냐.” 하지만, 부지런한 두 손은 꾸준히 일하여 끝내기 때문이다.

사람은 손을 가지고 일하며 손을 통해 장조하고 손을 통해 사랑을 증명하며 하느님은 우리 인생의 손을 사용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

우리의 손이 선한 일을 하고 잘 섬기는 손이 되게 해야 함은 하느님의 바라는 뜻이다.

손을 통해 서로 만나면 손을 마주 잡는 악수를 한다.

악수해보면 부드러운 일 안 하는 손과 일을 많이 하여 거칠어진 손을 본다. 가난한 집의 살림을 이끌어 가면서 일하는 어머니의 손, 논밭과 일터에서 일한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은 자랑스러운 손이다. 손은 근면의 상징이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손으로 하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일하여 좋은 일을 해내는 자랑스러운 손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손으로 일하여 손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능 물질 기술과 지식은 하느님과 같이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과의 영광을 하느님께 돌려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손이 되게 해야 한다.

우리 손의 활동에 따라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며 잘 섬기는 거룩한 손, 선하고 의로운 손이 되게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손이 주먹을 쥐는 것은 뜻을 이루겠다는 다짐이며 투쟁을 뜻하지만 평진 손바닥 손은 모든 것을 베풀고 용서하고 어루만지는 너그러움을 뜻하고 있다.

두 손을 마주치는 손뼉 치기는 남을 칭찬하고 축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에 좋다 한다. 손바닥에는 몸의 축소판 혈이 있어서 자극하여 건강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칭찬하고 손뼉치는 선한 손이 되어야 한다. 부지런한 손은 인생을 성공자로 만든다. 손이 남을 돋는 부지런한 손이 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주먹을 쥐고 있는 투쟁의 손이 아니라 항상 부드럽게 평고 남을 도와 일할 수 있는 손을 가져야 한다. 항상 평고 있는 손은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손이다.

손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거룩한 손으로서 전국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한다.

탈무드에 보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심판을 손을 보고하는데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탑비의 부드러운 손을 보고 너는 기다리라 했고,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손을 보이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며 부드러운 손을 보였는데 너도 기다리라 했고, 세 번째로 들어온 사람

은 많은 사람을 대접하는 식당에서 일했다 하며 거칠어진 손을 보였는데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라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에서 하느님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의 평가를 손을 보고했으며 많은 사람을 위해 입으로 가르친 부드러운 손도 아니며 자기의 육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하는 손도 아니며 수많은 사람을 돋기 위해 일하여 거칠고 무딘 손을 가진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나의 손을 보면서 세상에 나와서 지금 손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를 판단하고 부지런한 손 거룩한 손을 만들며 살아야 한다.

우리의 손은 어떤 분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남달리 잘하는 전문성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물건을 잘 만드는 기술자의 전문 손 기능, 새로운 기법으로 그릇을 만드는 도공의 손 기능, 음악 미술 체육의 예술에서 특기를 발휘하는 예술인의 손 기능은 자랑스러운 손이며 하느님께서 깨우쳐 주신 인류의 재산으로서 죽기 전에 많은 사람에게 손의 기능을 전수하여 기능이 소멸하지 않게 해야 한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며 이룩한 자랑스러운 두 손의 기능은 보호를 받고 전수되게 해야 한다.

社說

5·18 진상규명 조사 조속한 추진을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출범을 발목 잡던 ‘위원 자격’ 문제를 해결한 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5·18 단체들은 신속한 조사위가 동을 제축하고 나섰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더는 조사위 구성이 지체되지 않도록 국회 각 교섭단체는 위원 추천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제 조사위 가동의 결림돌이었던 위원선정문제가 마무리 된 만큼 더 이상 가동을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신속히 위원을 임명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앞으로 5·18 단체는 물론 국민들은 조사위가 불행했던 과거를 제대로 정산하고 국민 대통합의 정신을 담은 ‘진상조사 국가보고서’를 채택할 때까지 엄정하게 지켜볼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명의 위원을 자격미달로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한국당은 추가로 위원 추천을 방지했고, 조사위원회는 법이 시행된 지 13개월이 지나도록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은 협상을 통해 양당이 추천한 일부 조사위원을 교체하고 한국당이 추천한 군출신은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며 법통과를 마무리 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도 위원 자격을 주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대표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 “법 개정으로 조사위 구성이 지체할 이유와 명분이 없어졌다”며 “한국당 뿐의 위원을 즉각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한국당은 지난해 9월 특별법 통과 이후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다가 올 1월에야 3명을 추천하는 늑장을 부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명의 위원을 자격미달로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한국당은 추가로 위원 추천을 방지했고, 조사위원회는 법이 시행된 지 13개월이 지나도록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편집인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박종수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선운로 18(서초동) 영진빌딩 6층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미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 기고

본격 단풍시즌… 가을 산행, 안전하게 즐기자

본격적인 단풍 시즌이 다가오면서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가을철 안전한 산행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산행 전 스트레칭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등산 전후로 10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충분한 준비운동 없이 무리하게 산행을 하면 우리 몸의 근육이 놀라, 관절에 무리가 가서 부상을 당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등산 코스와 시간을 꼼꼼히 계산해야 한다. 가을은 여름과 다르게 해가 짧기 때문에 등산을 할 때 우선 등산 코스를 파악하고 코스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등산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낮의 길이가 짧아진 만큼 일찍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에 하산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여분의 옷과 비상식량 준비해야 한다. 등산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체온 유지이다. 등산을 하다보면 땀이 나는데 요즘같이 바람이 찬 날씨에는 이동 중이거나 쉴 때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여분의 옷과 열량 보충을 위한 비상식량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넷째, 쪼꼬마 무시증을 조심해야 한다. 쪼꼬마 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중에는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를 양말 안으로 넣어 최대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풀밭에 옷을 벗어두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독자 기고

조리 화재시 주방용 K급 소화기 사용 습관화 해야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 시 기름마를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식용유 화재의 특성은 착화 시 온도가 상승하면 식용유 표면상의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쉽다. 이런 이유로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 등은 K급 소화기 설치가 필수적이다.

지난 2017년 6월 개정된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 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가 1개 이상 의무비치해야 하고, 25㎡ 미만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에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기름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치솟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고, 분말소화기의 경우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기름 안쪽의 온도를 낮출 수 없어 언제든 재발화 할 수 있다. 그러나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마증(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냉각시키며, 강화약제로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한 장점도 있다.

또한 각 가정·차량·업소 및 점포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무안소방서 지휘팀장 박종희



아이에게
꿈을 읽어 주세요

지금,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1:1 책 읽어 주기가 시작됩니다.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납니다.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